

나의 서원 나의 신행 <7>

# 영화와 불서 포교에 40년 매진한

## 영화와 불서 포교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



한갑진 회장은... 1952년 동아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국제신문 정치부장을 지냈다. 1966년 대양영화주식회사를 설립해 영화제작 및 보급을 시작했으며, 현재 한진흥업주식회사, 한진출판사, 한진영상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알기쉬운 불교> <인도와 불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등이 있으며, <진리의 말씀 감흥의 말씀> <2500년전의 비구 비구니의 시> 등의 번역서가 있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부회장, 봉은사 신도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봄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신 4월 10일 오후 서울 필동에 있는 불자 원로 영화인 한갑진 회장(89·한진흥업)의 집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사 람보다 불사다.

그가 지난해 초심자들을 위해 불교 지침서로 펴낸 <부처님을 만나다>가 책상 가득 쌓여 있었다. 물론 판매용이 아니라 불교 공부를 위해 신청한 신행단체 법보시용 저서들이다.

한편에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는 포장되지 않은 책들이 수도룩했다. 45년 됐다는 남산 자락 그의 2층집은 온통 책 향으로 가득하다. 마치 고서점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한 회장은 매일 오전 8시면 어김없이 불교 원고 집필을 시작한다. 벌써 40년이나 됐다. 그동안 20권의 불서를 펴냈지만 한 회장은 아직도 원고를 쓸 때면 파지(破紙)를 여러장 널 만큼 온 정성을 다 쏟는다. 요즘엔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정리한 <대반열반경> 원고 정리에 바쁜 시간을 보낸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전 하루낮 하루 밤에 말씀하신 최후의 경전입니다. 핵심 사상은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수행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경전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등 20여개국어로 출간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된 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 회장이 누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서(佛書)를 잇따라 내는 이유는 분명했다. “방황하는 중생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 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의 길을 버리고 중생구제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는 게 저의 일생일대의 서원이지요.”

원력이 더욱 의미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책을 출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3년 <알기쉬운 불교>를 펴낸 것을 시작으로, <인도와 불교> <부처님의 생애> 등 직접 저술한 책들을 사찰과 군법당에 무주상 보시해왔다.

지난 2000년에는 10년간에 걸쳐 번역한 아함경 4권과 <새천년 해처 갈 불교>를 무료 배포했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등을 불자들에게 선보였다. 역시 무주상으로 나누어 줬다.

이런 보시행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한 회장과 인터뷰한지 5분도 채 안돼 의문이 풀렸다. 한 회장은 부인 순병희 여사와 목욕재계 후 자택 2층에 마련한 법당에서 매일 새벽 5시 예불을 모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어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정돈한다.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호텔에서 예불을 드려야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40여년간 매일 꾸준히 해 온 기도과 수행을 통해 신심이 돈독해진 한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중 으뜸인 ‘보시행’을 생활속에서 몸

소 실천하려 노력했다.

그는 불교에 뿐 아니라 ‘지금의 한국 영화’가 가 능하도록 초석(礎石)을 놓은 ‘영화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한 회장은 제목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져 지는 ‘로키’ ‘백야’ 등 수많은 명화들을 수임해 국내에 개봉했다. 또한 ‘난중일기’ ‘김의 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 등 국산영화도 직접 제작해 히트를 시키며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가 제작에 참여해 만든 영화만도 260~270여편. 1년에 18편을 제작할 만큼 바빴고, 큰 성공도 거두 었다. 대종상 작품상 및 대통령상,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상도 휩쓸었다. 하지만 한 사장은 그 화려했던 영화 이력속에서 1979년에 제작한 불교영화 ‘팔만대장경’을 가장 잘했던 선택으로 꼽 았다.

“당시 영화 ‘난중일기’ 시나리오를 집필했던 나 봉환 작가를 불렀어요.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나 작가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봉은

또한 범주사 산내 암자인 동양도 건립해 영화촬영 장소로 사용한 뒤 회사했다. 이때 평생의 스승인 해 정 스님을 만나 계를 받게 된다.

법명은 정오(正梧).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뜻에서 지어준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영화 ‘팔만대장 경’은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자들에게 초대권을 나눠 주었는데도 관객이 거의 없었을 정도 아니까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불교 일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내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한 사장은 이때부터 불자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영화 만드는 일도 곧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도 그 때였다. 또한 팔만대장경 목판 제작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그에게 영화인의 자세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가르쳐 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한 회장이 자신 있게 꼽는 이유다.

“팔만대장경 제작은 몽골군의 침략 아래 16년이 란 긴 세월이 걸린 파란만장한 드라마였습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자 한자 간절하게 판각하는 제작과정을 재현하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판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수행정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처가 법당’이란 말처럼 수행은 어느 한정된 공간이나 특별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 았습니다.”

영화인에서 불교출판인으로 탈바꿈한 한갑진 회 장은 “부처님 법에 따라 좋은 불서를 만들고 보급하 며 보내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까. 한 회장은 1992년 ‘김의 전쟁’을 마 지막으로 사실상 영화 제작업에서 손을 뗐다. 그때까 지만 해도 지금의 불교출판업을 시작하리라고는 아무 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첫 번째 출간한 <알기 쉬 운 불교>는 1만여 권이 팔려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더구나 단순한 책을 집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사찰이나 신행단체, 군법당 등지에 법보시를 꾸준 히 해 오고 있다.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영화로 번 돈을 모두 불교에 쏟아붓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 영화일을 하면서 번 돈을 부동산 에 투자하라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지금 큰 부를 누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은 버리셨 는데 그걸 저가 돈이 대수인가?”라며 “부처님 가르 침을 보급하는 법보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젊은 불자들이 불교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2년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면서 시작했다. 의식불명인 아버지의 머

### 80년대 말부터 불서 저술 법보시 <알기쉬운 불교> 등 20여 권 펴내 사찰 및 신행단체에 무주상 보시 새벽예불, 원고집필 40년간 계속 <대반열반경> 번역 내년 초 출간

사 법당에 1주일만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 작가가 며칠 뒤 가다가 잡혔다며 ‘팔만대장경’ 시나리오를 쓰더라고요.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자 또 난관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영화사 직원들이 큰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난중일기’로 돈을 많이 벌 어 냈는데 관객이 들지 않는 불교영화 한다면, 또 사장인 내가 불교에 미처서 영화사 돈 다 털어먹는 다고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도 제 평생의 발원인 불법 흥표를 위해서 계속 밀어 붙였지요. 심지어는 영 화인 불자회까지 조직하며 법회에 영화인들을 반강 제(?)로 참석하게 했어요. 법회에 안 나오면 내가 만 드는 영화에 출연조차 못시키게 할 정도로 사실 극 성스럽게 불교 포교를 했습니다.(웃음)”

제작비만 기존 영화의 5배가 들었고, 한획씩 판각 하는 장면을 비롯해 스님의 예불소리를 담아내기 위 해 후시녹음(당시엔 동시녹음이 없었다)으로 절에서 아침예불소리를 담은 정성을 기울였다.

한 사장은 영화 ‘팔만대장경’을 처음에 계룡산 동 학사에서 촬영하려 했다. 하지만 사찰측이 여러 가 지 사정을 들어 거부해 할 수 없이 충북 보은 범주사 로 옮겼다. 내부 촬영은 주로 의정부에 세트장을 만 들어서 사용했고, 외부 장면은 범주사에서 찍었다.

##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의 연삼(軟蔘)



연삼(軟蔘)은 당뇨에 좋은 노다케닌(Nodakenin)성 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다스리고 호르몬 기능을 원활히 하여줌으로서 체내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혈류의 흐름을 증진시키고 피를 맑게하며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깊은 산에서 정기를 받고자란 연삼(軟蔘)을 직접캐고 말리며 정성들여 달였습니다. 휴대하여 드시기 좋도록 연삼액을 레토르트파우치에 밀봉하였으며 향이 좋아 음용하기도 좋습니다. 연삼액을 꾸준히 드시면 하루하루 건강함을 느끼실수있습니다. 이 정성을 가득담아 귀하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구입문의 : 산약연삼액 010-4759-5152 / 010-8440-1096 (담당: 김종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438-427755 김태우 (1박스 60EA, 23만원)  
“판매액의 일부는 불교발전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동 제일약사도량

# 동해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약령사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은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벅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령사 주지 해과 합장 전파후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 ‘영원한 현역 포교사’



정오(正午) 한갑진 회장은 오전 8시면 어김없이 서재에 앉아 노구에도 불구하고 불서 집필에 전념한다. 벌써 40년째다. 한 회장의 평생 서원은 불서 무주상보시다.

리말에 있던 〈반야심경〉을 무심코 집어들고 독경하자 아버지가 “그 소리 참 좋다”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 목이 쉬어 읽지 못할 때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녹음까지 해서 들려드렸다.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의 위패를 신촌 봉원사에 모시고, 49재를 치렀다. 이도 모자라 1년 동안 매일 같이 새벽기도를 올렸다.

“처음에는 아버지 위패에만 절을 하다가 다들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 전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교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국내 불교서적뿐만 아니라 영화 일로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불교서적을 구입했다. 그리고 틈만나면 번역해가며 읽었다. 그때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던 책이 바로 후에 역서로 나온 〈석존의 직관〉이었다.

한 회장은 그 책을 쓰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집착을 끊는 것, 그 뿐입니다. 이 순간에 방일하지 않고, 공덕도 바라지 않는 삶이 내 생명과 하나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선이든, 염불이든, 간경이든 수행법을 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방편일 뿐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리이지요.”라며 당시를 회상하며 들려준다.

한 회장은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지



불서로 빼곡히 채워진 한갑진 회장의 서재

‘팔만대장경’ 영화 범주사서 찍어  
영화 촬영시 산내 암자 동암 건립  
보시행 늘어야 불국토 이룰 수 있어  
‘불서 저술 포교로 여성 회향하고파’

금 우리 사회에는 베품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팽배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베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질 때 부처님의 나라 즉 살기 좋은 불국토가 실현되지 않을까요”라며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한 회장은 “불교에서는 보시를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물론 불자들이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다운 보시는 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보시는 결국 이 사회를 더불어 살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회장에게 서원을 다시 물었다. 한 회장은 주저없이 답했다. 평소 신념대로 서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꼈다. 한 회장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불교서적을 계속 써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보시할 것입니다. 요즘은 비교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를 알아야 우리 불교의 좋은 점을 더 확실히 알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 있는 한 저의 불교 공부는 계속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저녁 예불시간이라며 불편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법당으로 향하는 한 회장은 (아함경)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일체제간 위에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위에도 아래에도 또 사방에도 원한 없이 자비심만을 베풀어라.”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임금 왕(王)자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 생각이 세운 돌듯이 싱그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싱그러움 향기는 지속되지 못하고 이내 소리에 경계를 내주고 만다. 그저 시원스레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있다. 수지나인지 산지나인지 알 바 아니다. 살아 있는 것의 비상이다. 송림을 뒤척이는 까투리와 장끼의 유희는 발길을 멈추기에 충분하다. 꿈이 있는 존재들의 몸짓이 아닐까. 그런데 저 비상하는 주인공은 얼마나 많은 공포를 이겨내며 연습을 하였기에 자유로이 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지식은 반복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외국어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므로 지식은 반복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지혜는 반복과는 별반 관계가 없다. 지혜는 지식의 깊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지식은 사랑분별을 동반하지 않다면 지혜는 틈이 없다. 마치 용수철을 눌렀다 놓으면 지체 없이 튀어 오르듯 순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선에서는 견해(乾慧)를 경계하라고 한다. 유루(有漏)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설 루(漏)자’를 범어로는 kleśa로 표현하고 있다. 즉 번뇌이다. 유루의 지혜는 아직 덜 닦이고 순수성이 떨어지는 지혜를 일컫는 말이다.

일생을 천진불로 수행한 선승이 있다. 해월(1862~1937) 선사이다. 도를 이루는 데 문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해월 선사에 대한 유명한 선화(禪話)를 소개하고자 한다. 무식한 해월이 강사들을 골탕 먹인 일화이다. 어느 날 강사들이 많이 모인 큰 방에 해월이 나타났다. 손에 쥔 죽비를 손바닥 위에 내리쳐 주위를 압도하였다. 주위는 고요 그 자체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터이니 여러 강사들은 풀어보시오.” 그리고 나서 죽비를 장판 위에 굴리면서 말했다.

“내가 방금 장판 위에 죽비를 굴렸소. 그러면 이 자(字)가 무슨 자입니까. 여러분은 문자에 밝고 그리에 통달하였으니 말해 보시오.”

대중은 그저 장판 위에 굴러 떨어진 죽비만 쳐다 볼 뿐이었다. 강사들은 온갖 궁리를 짜내 보았으나 결국 아무런 답도 떠올릴 수 없었다. 침묵이 더 할수록 분위기가 어색하였다.

“우리 지견으로는 도저히 모르겠으니 일러주시지요.”

그러자 천진불 해월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쉬운 글자도 모른다 말인가. 임금 왕(王)자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땅 위에 한 일(-)자가 누웠으니, 임금 왕이 지. 땅이든 흙 토(土)이고 흙 두 위에 한 일 자를

더하면 임금 왕자 이니까. 그대들이야 말로 임금 왕자도 모르는 까막눈일세.”

“임금 왕”자의 가로 세 획은 천·지·인을 본뜨고, 세로 한 획은 이 셋을 꿰뚫음을 뜻한다. 천·지·인을 꿰뚫어 가진 사람으로 천자를 말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당혹스러워 멈춰하는 일이 있다. 어느 때인가 주눅이 없고 대처할 수 있는 지력은 지혜에서 나온다. 상식이냐 정규과정의 가르침은 한결 같이 등식이 성립돼 있다. 그러나 지혜는 도식화된 등식을 초월한다. 어떤 틀을 부수기도 한다.

가방과 보자기를 보면 이해가 쉽다. 가방은 가방이라는 틀 속에서만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러나 보자기는 틀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가방은 지식이고, 보자기는 지혜에 비견할 만하다. 보자기는 대응도이기도 하고 신속성이 있어 물건을 쌀을 때 더 구겨 넣기도 한다. 보자기는 관용의 표상이기도 하다.

살다 맞닥뜨리는 위기 대처능력은  
지식 아닌 지혜에서 얻어져  
지식으로 사람 됨됨이 평가는 우매  
지혜의 삶 속에는 평등·질서 있어

지식의 유무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려고 하는 속단은 금물이다. 많이 안다는 것과 각자의 삶의 모습은 거리감이 있는 사례가 쉬 드러나고 있다. 마치 정화작용을 거치지 않은 물과 같다. 그러한 물을 음료수로 마시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인간의 거친 행동은 지식으로 잠재울 수 없다. 지혜가 광선으로 번득일 때 그곳에 평등이 있고 질서가 있다.

약속을 하지 않았던 대지를 박차고 내미는 노랑고 아린 새싹에서 약속을 배운다. 진실을 배우기도 한다. 지난봄이 가면서 내년 이맘 때 온다는 언약이 없었던 절기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약속 없는 약속을 지킨다. 자연의 지혜다. 이기적인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꾀하지 않는 한 본래 모습대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진실을 자연의 유일한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속단이 될까.

“임금 왕”자의 못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강박의 번뇌는 비단 그들만의 몫으로 남지 않는다. 문자에 걸리고 집착하면 누구나 강사의 모습이 된다. 탈속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록신 마음의 변화없는 구원 투수가 아닐까 한다.

###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지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있게 일괄 처리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

###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세계속의 중증자살 건립 불사를 위한 천일기도 자비방생 천도도량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부여군민과 함께하는

## 제3회 부여군관내 어르신 1000분 초청 효(孝) 잔치한마당

귀의 삼보하옵고  
천지만물이 소생하고 녹음이 푸르런 계절을 맞이하여 연각사에서 4월 28일(토요일) 제3회 부여군 관내 어르신 1000분 초청 효(孝) 잔치 한마당을 개최하오니 뜻있는 많은분들께서는 후원물품과 자원봉사에 정성껏 동참하시어 무량한 대복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본 자비행사는 BTN 불교TV와 함께 합니다.

- ▶ 일 시 : (불기 2556년)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 3시까지
- ▶ 장 소 : 부여청소년수련원 대연각사 앞 광장 (특설무대)
- ▶ 주 회 : 금성산하 대 연 각 사 회 주(佛日) (신도회 일동)
- ▶ 협 찬 : 읍사무소, 문화관광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운불련, 건강대요양원, 정심회, 옛소리연구회,동락, BTN불교TV, 충청방송, 적십자봉사, 대전일보, 중도일보, 금강일보, 충청매일, 충청신문, 동양일보, 충청투데이, 중앙매일, 중부매일

행 사 일 정 표	
• 대연각사법당 범회 10:00~10:50 • 9시 40분 ~ 10시 (동락동물놀이)	
• 집전 대연각사 스님 11:00~11:50(찬불가 합창단)	
[1부] 11시~11시 50분 1. 삼귀의 2. 우리말 반야심경봉독 3. 찬불가 4. 대연각사 회주 불일 큰스님 환영사 5. 축 사 - 부여군 이용우 군수님 6. 축 사 - 부여군의회 김중근 의장님 7. 시흥서원	
[2부] 12시~1시(점심식사) (순두부찌개, 떡, 과일, 차, 음료)	12시~12시 30분 (동락동물놀이)
[3부] 1시~2시(옛소리연구회) 사물놀이-각설이-창-살풀이-대금-한량무	
[4부] 2시~3시 이미영애로빅, 박진경댄스아카데미, 최정원밸리댄스, 쿠틀래가수 / 박정은, 박건아, 장소미 가수/이지향 불자가수/머루다래	
전체, 총출연자 - 신화가, 이리랑 합창	

1. 2부 사회자 / 불자가수 머루다래  
3. 4부 사회자 / 불자가수 머루다래, 장소미(가수)  
교통정리 • 경찰서, 운불련  
안전사고 • 소방서 응급처방대기, 부여 보건소 간호원 대기, 건강대요양원 간호사 협업체크  
부수운영 : 통치료, 수지침 무료봉사  
봉사 : 대연각사 신도회, 부여군청년불자회, 정심회, 운불련, 부여세미물부녀회  
주변정리 정림사제(캐뎬), 백계유적을 빛냅니다)

### 금성산하 대연각사 회 주(佛日)(신도회 일동) 합장

문의전화 : **041)835-3933**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15-9번지 후원주실분 : **농협 463143-51-009534 (예금주:연각사)**